

10월부터 밀라노-뉴욕-도쿄 해외나들이
원성스님 동승전



‘동승’의 천진불심 영혼까지 정화

“한없이 맑고 순수해 영혼까지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티없이 맑고 순진한 동승들을 보니 앞으로 깨끗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보다가 왠지 눈물이 나왔어요. 동승을 보다가 문득 현실의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왠지 참회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4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안국동 백상갤러리에서 개최된 원성스님(중앙승가대 4년)의 동승전을 본 관람객들의 경중 일부이다. 스님의 15번째 개인전인 이번 동승전에는 일흔동안 2만여명의 사람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말인 12, 13일에는 원성스님이 직접 도록에 정성껏 그림을 그려주어서인지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성황이었다. 또 전시된 120점중 110점이 팔려나가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원성스님의 동승이 전시 때마다 화단과 종교계가 놀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천진무구한 동승들의 꾸밈없는 모습이 너무나 청정하고 해맑은 감동을 준다. 봄이 통통하고 눈이 해맑은 동자들이 나타내고 있는 천진불심이 인간의 근원적인 본성을 자각하게 해 청정한 삶을 일깨워주리라 저절로 다짐하게 된다는 것. 또한 원성스님의 탄탄한 기량도 빼놓을 수 없다. 전문적인 미술수업을 받은 적이 없지만 자연스러운 붓놀림과 색감은 마치 다년간의 미술공부를 마친후에나 나올 수 있는 기량이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타고난 그림솜씨가 ‘스님의 작품’이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타파시키고 놀라움을 배가시킨다. 이러한 점 때문에 스님의 전시회는 종교, 나이, 직업, 세대에 관계없이 전국적인 사랑을 받는다. 전시회장에서 동승그림을 둘러보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라게수녀는 “스님의 그림이 영혼을 정화시켜 기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말한다. 30년을 넘게 매일같이 32개의 절과 3시간의 독경, 일주일

한번씩 3천배 등 독심한 불심을 지닌 어머니(어머니도 지난해 출가해 비구니님이 되었다)의 뜻에 따라 고등학교 2학년때(1991년) 도원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원성스님은 해인사강원에서 사교를 마치고 중앙승가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다. 스님이 그림을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선보이게 된 것도 지난 95년 중앙승가대 신축캠퍼스기금마련전이 처음이었다. 이 전시회는 일주일 동안 1만 5천여명이 다녀가는 성황을 보였고 작품 전부가 팔리는 교계전시회로서는 드문 기록을 세웠다. 이후 청주불교방송국건립기금마련전, 봉선사 중창불사기금마련전 등과 해인사 백양사 부산신민학관 대구상성갤러리 원광대박물관, 광주 금호미술관 미산대우갤러리 등 곳곳에서 전시를 열며 동승 권을 늘려갔다.
전시회가 더해감에 따라 동승들의 모습도 점차 성숙해졌다. 초기의 그림은 봄이 통통하고 밍그러운 아기동자상이 꾸밈없지만 이번 ‘산사일기’에 나온 동승들은 현실 의정해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초창기 그림엔 여백이 많았고 밝은 단색과 담채를 주로 썼으나 최근작은 배경에 회화성을 가미하고 꼭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동승의 해맑은 미소가 세계로 나들이를 떠난다. 10월 10~25일 이탈리아 밀라노시, 11월1~7일에는 미국 뉴욕 맨하탄 한국문화원 전시실, 그리고 11월 15일부터 21일에는 한일불교친선협회 초청으로 일본 도쿄에서 전시가 열린다. 이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청담의 서양인들이 동승의 천진무구하면서도 청정한 모습에서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원성스님은 중앙승가대를 졸업하면 선원이나 율원으로 갈 계획이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거뒀던 눈부신 성과를 접어버리고 향선과 율장을 공부하며 치열한 남자의 길에 본격 나선다.
이경숙 기자(gisee@buddhapia.com)



원성스님의 어린날의 모습을 그대로 그린 작품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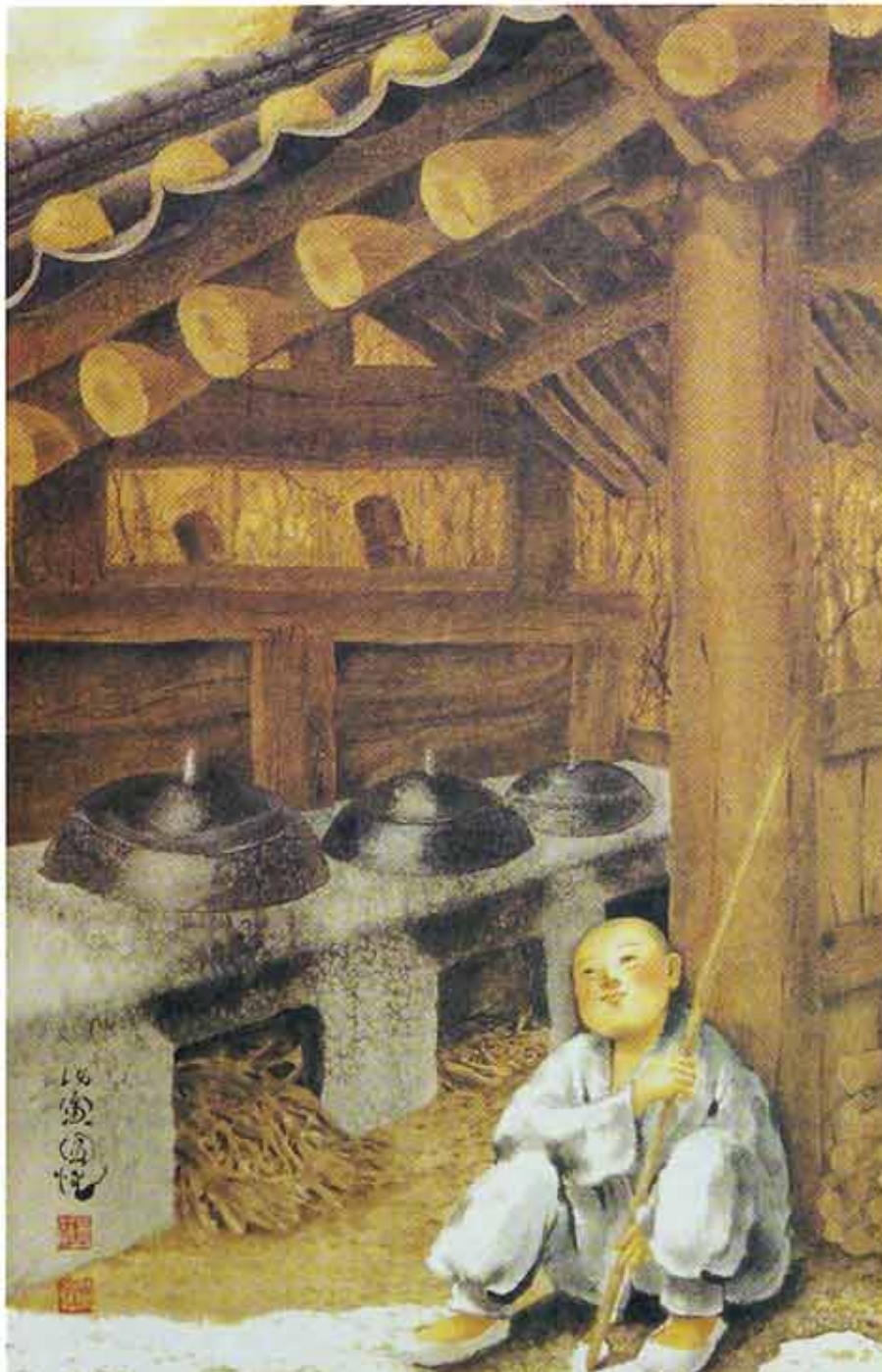
‘원성스님의 동승그림’을 보노라면...
“잠시나마 해맑고 투명하며
어질고 참한상태로의 회귀”

이원복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원성스님 그림 하면 그를 아는 이들은 너무나 동자승을 떠올린다. 화면에 전개된, 속진이 묻지 아니한 천진무구하고 꾸밈없는 모습들은 바라보는 이들 또한 착한 동심세계를 마냥 그리워하게 한다. 그의 그림을 접한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 및 영혼까지도 잠시나마 해맑고 투명하며 어질고 착한 상태로의 회귀를 이끌며 인도하고 나아가 이 상태를 지속하게끔 회심(回心)까지를 강하게 요구한다.
동자승들이 취하는 행동까지 모두는 보는 이로 하여금 잔잔한 미소를 짓게 함은 우리를 본연의 권리를 그렸기 때문이다.
‘햇살 아래서’ ‘불두와 앞에서’ ‘목어래서’ 등에서의 꿈꿈함과 작화과정의 견실성은 이번 ‘산중일기’ 전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배경은 주인공을 주인공답게 하는 무대이다. 원성스님이 주로 택한 배경은 황색에 목리가 선명한 옥조건물 등은 무 말할 것도 없이 사찰이 주류이며 그 가운데서도 창살이 돋보이는 문 주변 등이나 이는 예외없이 불문(佛門)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그 문은 열려있고, 때로는 기댈수 있으며 동자승을 더욱 의정하게 하는 배경이다. 땅에 뿌리를 내려야 거목이 되듯, 동승 갖든 도처는 그야말로 도량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원성스님의 동승은 종교, 나이, 직업, 세대를 초월해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특히 수녀, 교무 등 타종교인들이 전시장을 많이 찾았다. 백상갤러리에 2만여명이 다녀갔다.



비우는 작업에 이어 이번 백상갤러리에서의 15번째 개인전에서는 가을안에 풍경 처럼 가득 채우는 작품을 보여줬다. 해외 나들이에서 돌아오면 다시 비우는 공부에 들어갈 계획이다.



어뻛을 실린 초기작품 '눈빛'.



길을 찾아 가는 길.